

2010 비전 수립으로 새로운 5년을 준비한다

워크숍을 위해 전국에서 집결

협회의 2010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4차 워크숍이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추진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흥원연수원. 연수원까지는 최수현 과장님의 차를 얻어 타기로 하여 20일 오전 7시에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김포I.C.를 지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박성원 부장님과 변정식 부장님이 시야에 들어온다. 약간은 푸석한 얼굴에서 잠이 부족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본다. 전북과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네다섯 시에는 집을 떠나야 했을 것이다.

8시 20분쯤 도착한 연수원의 정원은 안개를 감싸 안은 채 고요와 아늑함을 주었고 이따금 새소리가 더해져 신비롭기까지 했다. 9시에

임박하여 T.F.T 구성원들이 회의실에 모이니 계획대로 작업은 착착 진행되었다.

2010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진행

2005 비전을 통한 지난 5년간의 노력을 초석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4명으로 구성된 2010 비전 T.F.T를 발족하였다. 그들은 6월 15일-8월 19일 총 9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워크숍 기간만큼은 바쁜 현업을 잠시 제쳐두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진 단계별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비전은 전 조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1. 지난 5월, 24명으로 구성된 2010 비전 T.F.T를 발족하여 6월 15일-8월 19일까지 총 9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 신규사업, 연구개발, 인사조직, 재무, 정보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 전략을 작성한 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3. 발표내용을 신중하게 체크하고 있는 윤장한 과장, 정광호 국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조직원의 행동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워크샵 내용을 살펴보면, 2010 비전 수립의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팀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1차 작업에 착수하였고, SWOT 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점검하고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2·3차 워크샵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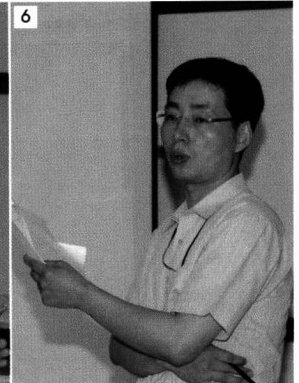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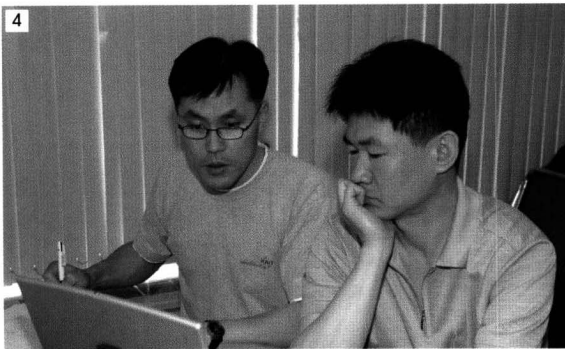
사업국별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박빙의 승부

이번에 진행된 4차 워크샵의 추진과제는 전략의 수립이었다. 팀원들은 신규사업의 확대와 주력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규사업, 연구개발, 인사조직, 재무, 정보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별로 전략서를 작성한 후에는 발표와 토론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한참 발표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카메라를 들이대자, 졸고 있는 증거를 남기면 안되겠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방해가 되는 눈치였다. 토론에서는 직급이 무색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사업국별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듯 했다. 번뜩이는 눈빛과 비수같이 예리한 지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나갔다.

고된 작업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이런 작업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두들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끄떡없다고 한다. 무슨 이야긴지 궁금증이 생기려고 하는 순간, 운동화만 있으면 된다고 답을 준다.

“여긴 조깅 코스가 참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바퀴 돌고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 인사부문의 전산 활용방안을 협의 중인 김동기 과장, 신상규 부장
5. 발표내용과 토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김윤철 전문위원장
6. 환경위생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윤장한 과장
7. 건강진단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변정식 부장, 최중학 부장, 최수현 과장



8. 타당성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최호춘 실장, 윤장한 과장, 박성원 부장, 정광호 국장



9. 이명숙 국장, 김진호 부장, 문형중 부장이 보건관리대행 사업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꼼꼼한 자료 분석은 필수이다.

이런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지요.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팀원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건강을 잃으면 그 무엇인들 의미가 있겠는가. 건강은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며 소중한 가치이다.

새로운 5년을 위한 힘찬 행진을 준비

2010 비전을 발표하기까지 앞으로 실행전략 수립·평가지표 설정·종합적인 검토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다양한

환경이 요구하는 안목과 재능을 갖춘 T.F.T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활기차고 의욕적인 분위기로 2010 비전의 성공을 일찌감치 점쳐 본다. 새로운 5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씩씩하고 힘찬 행진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를 회의실의 냉방에 의지하고, 마음속의 번뇌는 연수원의 정원에 잠시 맡긴 채 2010 비전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강한 투지는 분수대의 물줄기 처럼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뿜어나가고 있었다. ☺

